

1933년3월1일 4면 7단

哲學과 文學

생각나는 대로의斷片(完)

申南徹

로당에게 있어서서는 深刻과 眞實은 冷徹하였든 것 가티 同時에 熱情的인 것이었다. 『藝術은 情緒(상티만)以外的 아무것도 아니다』라고 한다.

情熱에 타는 同時에 또 意志的으로 □□에 熟達하지 안으면 아니 된다. 『로당』에 있어서서는 이 모든 要素는 한 개의 統一體를 成하고 있다. 그리하여 人生의 藝術的 □□을 주고 있다. 『생각하는 사람』은 턱을 집흔 바른 팔을 펴고 이러스라고 한다. 그러나 그는 思辨에 잔겨있다. 바야흐로 □□하라는 思辨의 熱情을 『셰카단니즘』의 敗北에 對한 反逆의 □□인 同時에 웬갓 矛盾 苦惱를 다 □□해야 그것을 合理化시키고 神學的으로 맨드는 □□的 意圖의 表現이 아니든가! 『로당』의 『루팡술』은 永遠이 바른 팔을 펴고 이러스지 못하리라! 그것은 □□히 思辨의 熱情에 타리라-과비장의 □□에 對한 □□의 熱情에 타면서-그러나 나는 『로당』의 『생각하는 사람』을 조와한다. 生命과 □□과 意志의 統一로서의 『루팡술』을 조와한다. 人生은 藝術에 依하여 굿세 게 사러가고 또 生活(□□의)의 참된 意義를 體得한다. 나는 藝術家도 되지 못한다.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한편 구것에서 □□하며 또 그것을 享樂하는 志向을 가지라고 한다. 如何한 사람이든지 나에게서 自己를 쏘는 社會를 □□의 系列에서 發見하리라. 藝術도 X X的인 點에 自己의 生命을 保存할 것이 다. 藝術이 X X的이라면은 그것은 悟性的이 아니라면 아니 될 것이다.

人間은 哲學的 欲求를 本來부터 가지고 있다. 더욱 人間이 생각한다는 것을 不可避的으로 自身의 特性을로 할 쎄는 그 欲求는 必然的인 것이다. 具體的이고 現實的인 人間이 그것의 意味 又は 意味의 理解로서 人生이라는 哲學的이고 宇宙論的인 存在를 問題삼을 쎄 人間은 自身을 哲學的으로 規定한다. 『人間의 人生』-이것은 『하이데거』(有名한 現今의 獨逸 哲學者)의 『存在者의 存在』에 比等할 것이 되지 안을가 생각한다. 『□風感別曲』이라는 소설 노래에 나오는 人間의 具體的인 모양 人間의 가지가지의 □□과 □□와 反逆과 □□에서 볼 수 잇는 人生의 理解를 나는 너무나 쪽쪽이 가지게 된다. □

風感別曲을 읽을 때 나는 存在者인 人間의 存在로서의 人生을 理解한다. 勿論 어느 程度까지이나 그러나 意氣□□해야 잇는 大多數의 人間의 人 (원문 누락)

그러케 理解되고 잇다. 一部の 有閑的 部類는 그러한 人生에서 一生을 마친다. 그러한 人間의 人生이 잇을 수 잇다. 그러한 人間의 人生에는 悟性的인 統一의 理論을 □하고 잇다. 그러한 有閑的 部類에게 悟性的인 計劃的 意圖-科學的인 動的 志向을 주며 그리하여 人間의 人生을 참으로 理解하게 하는 것은 文學的 勞作에 依하여 꾀 效果的이라고 생각한다. 文學的 勞作뿐 아니라 藝術 一般의 人生 그것에 對한 哲學的 意義의 中心點이라고 생각한다. 藝術은 美에서 人生의 過去, 現在, 未來를 動的으로 理解식히는 것이라면 文學은 말하여야지는 文字으로써 □□를 指示하는 것이겟다.

人間의 意味的 存在로서의 人生은 그리하여 哲學的 存在가 될 것이다. 科學的으로 體系지어진 動的 世界 全으로서의 人生의 意味가 나올 것이다. 이러한 點에서 所謂 人生哲學이라고 하는 □□는 그 通用성을 어들 수 잇다. 普通 『人生』이라고 할 때는 □□과 □□를 더 만히 □□으로하여 생각한다.

그러나 人生은 決코 그러한 것이 아니다. 그것은 呑의 體系이고 悟性的 計劃的 科學的 統一의 意味가 아니면 아니 될 것이다. 그 안에는 □□도 □□도 □□도 □□도 잇을 것이다. 그러나 그것은 自身을 □□하여 굿세인 새 □□으로 나아가는 意志的 □□가 아니면 아니 될 것이다. 人生은 어데까지든지 人間의 呑의 生의 生活의 意味的 存在이다.

이點에 人生은哲學이라고하고그統一的意圖의 實現과宣傳에잇서서 藝術(文學까지도너어서)과의結合을 必然的이게한다

X X X

고요히 □□하는 □□와 생각하는 □□을 가지게 한 이 駱山下의 □□한 □□을 通하여 가지가지의 화살(矢)을 맞는다. 그 화살을 바들 때 마다 나는 □□되고 □□된다. 그 화살들은 外的으로 나를 쏘는 것이다. 그러나 □□ 그것을 맞고나면 생각에 타고 □□에 젓는다. 어떤 때는 그 화살이 정통으로 □□을 썩을 때가 잇다. 그 때는 참으로 苦痛이다. 그 苦痛의 □□□□로 잇을 수가 잇스리라. 그러나 그것의 根本的 □□는 果然 무엇인지? 무엇인지 모르는 배아니나 쏘한 무러본다. 哲學을 工夫하는 者의 옛구진 自問自答이다. 쓸데업는 트위들일가? 이새것 저거는 것이 모다 쓸데업는 트위들이라면 나는 哲學 工夫를 지버치겟다. 그러나 쏘한 自問自答한다. 果然 그것이 트위들인가하고 -트위들 가티 보이는 이러한 論述이 트위들이 되지 안케 하려는 곳에 哲學 하는 者의 學問的 精通이 잇는 것이겟다.

二月 十六日 駱山下에서